



임실 오수 초등생, 경찰에 감사 편지 전해 눈길

“경찰관님 저는 송00예요. 저희등에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수의견공원 축제를 할 때 차가 많아서 어디로 가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오수초등학교 2학년 송모(9)양 등 2명이 지역경찰관들을 위해 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를 방문, 손편지를 전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편지에는 “경찰관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등 미소를 짓게 하는 따뜻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오수지구대 지역경찰관은 지난 1일 오수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경찰홍보물을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준성 오수지구대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편지 덕분에 오수지구대 경찰 모두가 힘을 내어 근무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교대, 교육가족 워크숍 개최

전주교육대학교는 전주·군산부설초 교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주부설초 상록누리관(체육관에서) 2023 교육가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병춘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민환성 교장(전주부설초), 김신철 교장(군산부설초) 등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병춘 총장은 “잡사나 바쁜 학사 업무를 내려놓고 경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부상 없이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며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민환성 교장 선생님과 전주부설초 교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배구경기(9인제), 단체줄넘기(8인조), 계란판 탁구(8인조)로 진행, 군산부설초가 최종우승을 차지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경찰, 가수 김태연양과 보이스피싱예방 영상 제작

정읍경찰서(총경 김한곤)는 미스트롯2 가수 김태연양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서는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홍보영상 제작에 나섰다.
 이번 홍보영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김한곤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를 당하기 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 활동을 꾸준히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카캠사 회원들, 무주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카캠사(차로 캠핑하는 사람들의 회원들이) 지난 2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카캠사 성주형 매니저는 “아름답고 깨끗한 무주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주지역 인재들이 꿈을 이루며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금 기탁을 위해 의미 있게 써주시고 우리 회원들도 항상 무주군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카캠사는 전국에서 모인 회원 4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정기 모임을 열고 단합행사 개최와 지역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무주를 찾아주시고 무주시민의 마음까지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함께이룬 군산농업, 함께여는 미래농업’

군산시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1천여 군산시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원들과 생활개선회원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뫼쳤다.
 군산시는 (사)한국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회장 김덕재)와 (사)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리영심) 두 단체가 손을 맞잡고 지난 1일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함께이룬 군산농업, 함께여는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2023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단체 통합 50주년을 맞는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등 각 농업관련 기관장들과 농업인 단체장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덕재 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한마음대회는 지난여름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 수해피해로 상심이 깊을 회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힘을 합쳐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되자”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이상기후와 경영 불안으로 농업인의 시름이 깊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



들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농업은 미래산업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와 (사)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는 매년 영농폐자 수거사업, 어려운 이웃돕기 자원봉사, 농촌환경살리기 등에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왔으며, 군산발전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농업, 농촌의 건장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다. /군산=김판곤기자



키니벤 전북대 박사과정생, 연안방재학회 ‘우수’

전북대학교 키니벤 박사과정생(토목공학과)해인/수공학 연구실이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연안방재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황규남 지도교수와 함께 발표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황규남 교수 연구팀은 올해부터 4년 동안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연구과제인 ‘순환적응형 연안침식 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의 첫 번째 성과로 ‘아산반 정착성 퇴적물의 침식 잠재성 및 민감도 조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아산반 지역의 응집성 퇴적물의 침식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전북대 해양공학실험실에서 환경 수조를 이용해 균일한 표면 조건과 부피 밀도가 다른 한 지점에서 얻은 5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응집성 퇴적물의 침식은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의 결과와 비교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로 연구팀은 침식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침식 실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최초로 확인해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응집퇴적물의 침식은 물리화학적 기본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살펴보고 아산반 지역의 침식특성의 민감도 및 침식 가능성을 조사해 다른 지역의 결과와 비교분석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한국연안방재학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해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학문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챔프인증제’ 첫 인증서 수여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일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2023학년도 1학기 챔프인증 기준을 이룬 재학생 12명에게 첫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성희 교육혁신본부장은 김민사(물리치료학과 2년) 학생 외 11명에게 챔프인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작된 챔프인증제는 ‘학생역량통합인증체계’와 ‘자기설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선 및 보완해 통합한 것으로, 교과(전공·교양)와 비교과, 3대 핵심역량(문제해결·자기관리·공감소통) 등의 영역에서 인증 기준을 확정한 학생들에게 인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우석대는 전체 교과에 핵심역량 등을 기재하고, 비교과 활동마다 영역별 점수를 배치해 실무와 핵심역량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교육혁신본부와 혁신사업단·LINC 3.0 사업단·대학



일자리본부 등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과 산업현장 사이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공 능력 기반의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했으며, 교육과정 개발부터 운영·평가 및 환류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무주군, 내년 생생마을 공동체하미당 개최지 선정

지난달 무주군이 2024년 제6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공동체하미당 개최지로 선정됐다.
 정읍시에서 개최된 제5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공동체하미당에서 최일섭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개최지를 전달받았다.
 무주군은 2024년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자연특별시’와 ‘도농 상생으로 함께 성장 하나 되는 전북 공동체’라는 슬로건으로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을 알리고, 사람 찾는 무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일섭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은 “2024년 무주방문의 해가 대한민국 1등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아름다운 마을을 소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 역량을 높여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모어기니와 문화지원 ‘맞손’

남원시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일신)와 모어기니(대표 박나연)가 학교 밖 청소년 문화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어기니는 남원시에 소재한 네일아트와 풍선아트 전문점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네일아트 체험과 풍선아트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나연 대표는 “네일아트나 풍선아트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전문지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일일 클래스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직업 체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신 센터장은 “모어기니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나아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했다.
 한편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까지 총17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격증 취득 및 사회활동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관광지 RE-PLUS추진단, 커플스테이 행사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RE-PLUS사업추진단이 지난날 28일, 관현루에서 “음악이 흐르는 로맨틱한 가을 정원”이라는 주제로 ‘제1회 커플스테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커플스테이는 연인, 친구, 가족 상관이 두 사람이 남원을 방문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콘서트, 이레 로맨틱한 천 여개의 LED 캔들 라이트쇼, 재즈 연주, 기타리스트 김광석과 심어송라이터 손지연의 공연, RE-PLUS사업추진단의 야간관광프로그램인 ‘별명달링’ 등의 프로그램을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선보였다.
 특히 관내 식당들과 협업을 맺어 커플들이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화인팅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한복 대여료를 할인해 커플들이 야간 인생샷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비전대 유학생들, 하림산업 현장체험 실시

전주비전대학교 유학생 30여 명이 지난 1일 익산 하림산업 방문,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체험학습에서 유학생들은 닭고기 가공공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육류의 가공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식품 가공 등을 직접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림같은 대기업의 내부시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기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체험행사를 기획한 정진영 국제교류원 교육담당자는 “하림산업에서 지원하는 기업 견학 프로그램은 진학과 취업의 꿈을 준비하는 연수생들에게 한국 대기업의 문화와 실무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은행, 무주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기탁

무주군은 2일 (주)전북은행(대표 백종일)에서 3백만 원 상당의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건위생용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영민 부행장과 김성수 무주지점장이 참석해 무주군 관내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따뜻한 무주 만들기에 일조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면서 “자은 정성이지만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오늘 행한 나눔이 내일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알림

▲제14회 전북스피치하미음 축제= 일시: 4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덕진공원, 주최: (사)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본부, 주관: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문의: 063-285-6676, 010-7304-5665